

# 지 역 경 제 일 지



[2020. 7월중]

7. 12 ▶ 경기도, 2022년까지 도내 모든 테크노밸리 조기 착공하기로

- 경기도는 민선7기 후반기 도시주택분야 정책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신산업 혁신클러스터 및 3기 신도시 조성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을 발표
  - 제3판교테크노밸리, 경기양주테크노밸리 등 현재 계획 중인 모든 도내 테크노밸리를 2022년까지 조기 착공하고 올해 남양주 왕숙,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신도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

7. 13 ▶ 한국은행 경기본부, 「경기지역 소비의 특징 및 시사점」 발간

-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경기지역의 신용카드 이용내역을 통해 민간소비지출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 활성화 방안을 제시
  - (현황) 2019년중 경기지역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12.2조원으로 전국 소비액의 20.8% 수준이며, 업종별로는 종합소매업, 전자상거래업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
  - (최근 동향)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3월에는 신용카드 이용액이 상당폭 감소하였으나 정부·지자체의 지원금 지급 등으로 4~5월에는 전년동기대비 증가로 전환
  - (경기지역 소비 행태의 특징) ① 비교적 낮은 역외소비율, ② 역외소비 중 서울의 비중이 매우 높음, ③ 타지역에서의 소비유입률 증가세 지속, ④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 확대 추세, ⑤ 수도권외의 단일 경제 생활권화 현상 등
  - (소비 활성화 방안) 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경기도민의 지역 내 소비 유도, ② 관광, 의료산업 등의 발전을 통한 소비 유입 도모, ③ 핀테크 기업 육성을 통한 온라인 판매 및 결제시장 활성화 등에 유의할 필요

7. 23 ▶ 도, 데이터·저탄소·안전 담은 경기도형 뉴딜 추진… 2022년까지 5조4천억 투입

○ 경기도는 정부의 ‘한국판 뉴딜’ 정책에 공조하여 2022년까지 5조 3,800억원(도비 1조 3,300억원)을 투자해 3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‘경기도형 뉴딜’을 추진

— 데이터\*, 저탄소\*\*, 안전\*\*\* 분야에 각각 2,180억원, 2조 7,900억원, 2조 3,750억원을 투입하여 코로나19로 가속화된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비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

\* 디지털 자산 공유·공공플랫폼 확충, 디지털 제조환경 조성 등

\*\*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안전망 구축,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등

\*\*\* 고용 안전망 강화, 디지털 사회의 안전 인프라 구축 등

7. 29 ▶ 한국은행 경기본부, 「경기지역 혁신클러스터 현황과 발전 방안」 발간

○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경기지역의 혁신클러스터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제시

— (현황) 경기도는 우수한 지식산업 기반, 양호한 입지여건, 풍부한 혁신역량 등 혁신클러스터 구성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, 3개의 혁신클러스터\*를 기초성하였고 5개 클러스터\*\*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

\* 판교테크노밸리, 안산사이언스밸리, 광교테크노밸리 등

\*\* 일산테크노밸리, 경기양주테크노밸리, 제3판교테크노밸리, 경기용인플랫폼,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등

— (특징) 경기지역 혁신클러스터에는 정보통신기술(IT), 문화콘텐츠기술(CT), 생명공학기술(BT), 나노기술(NT) 등의 기술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, 산·학·연·관의 연계를 통해 지역산업을 선도

— (발전방안) ① 혁신클러스터별 미래발전계획 수립·추진, ② 주력산업 집적지와 상호연계 방안 구축, ③ 기존 사업단지와의 시너지 창출, ④ 유관기관의 정책지원 강화 등에 힘쓸 필요